



인공쓰레기섬의 野鳥公園을 찾아서

올해 10월 18일 일본 동경 시당국은 쓰레기더미로 인공섬을 만들어 그곳에 야조공원 기존 시설을 10배나 확충하여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였다.

필자는 10여년전부터 이 야조공원을 관찰해오던 터이라 17일 개장한 일본의 이 야조공원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 볼 수 있었다. 일본 동경 시당국이 야조공원을 건설키로 계획하게 됐던것은 우습게도 처리곤란한 쓰레기문제에 부딪히면서 였다.

우리나라도 지금 쓰레기 처리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일본은 15년전부터 쓰레기문제로 정부가 야단들이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것이 당시 오오이(大井) 제7부둣가에 쓰레기를 모아 인공섬을 만들고, 이 섬을 오오이(大井) 제7부둣공원으로 조성하기 시작했다.

바다위에 쓰레기로 바다가 메워지면서 인조섬이 생겨나고, 이 쓰레기더미에다 나무를 심고, 창고를 짓는등 하나의 도시를 형성시켜나가던중 3.2ha에는 들새들이 서식할 수 있게 공원을 만들고 일본야조회에 관리작업을 위임했다.

오요한/ 한국 야생동물보호협회이사

이것이 1978년 8월의 일이다. 일본 야조회는 공원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연과 야생조류 서식 실태를 설명해 주는 안내원을 상주시켰다.

그러나 공원을 찾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안내원의 수가 부족하게 되자 자원봉사자를 선발, 안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더미의 인공섬엔 하나의 도시가 건설되고 야조공원이 들어서 공해에 찌든 시민들의 발걸음이 부쩍 잦아지게 됐던 것이다.

예상외로 많은 시민들이 야조공원을 찾게 되자 수년전부터 시나가와 (品川) 구 항만국은 야조공원 확장 작업을 계획, 실행하여 올해 10월 18일 확장 개장하게 된 것이다.

이런 큰 사업이 환경 당국의 손에서가 아니라 동경시 항만국에 의해 완성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이번에 방문했을 때 보니 10년전에 심었던 작은 나무가 7~8미터 크기로 쓰레기 섬에서도 잘 자라고 있었고, 훌륭한 방음림 역할을 하고 있었고, 들새들의 좋은 서식처가 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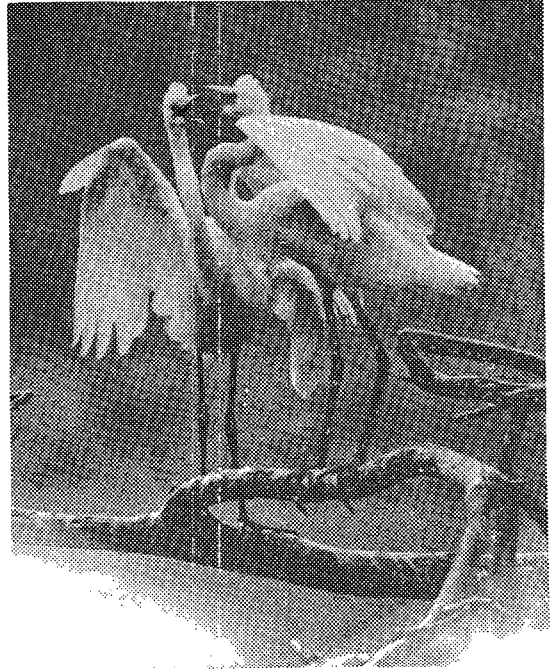
12년간 야조회측은 꼬마물떼새들을 유치, 번식 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물닭, 큰물닭 흰뺨검둥오리의 번식, 흰눈썹뜸부기의 겨울철 지나기등에도 성공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쇠부엉이이나 황조롱이정도만 월동하였지만 나무들이 크게 자라면서 측부엉이와 참매가 월동하는등 자연의 섭리를 눈앞에 보여주었다.

또한,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운동과 활동을 빼놓을 수 없었다.

자연보호에 앞장선 지역부녀자들이 행정당국에 청원, 엄청난돈을 들여 27ha에 이르는 야조공원을 만들게 한 숨은 공로자이기도 하다. 새로 확장 개장된 이 야조공원은 한바퀴 도는데만도 세시간이나 걸릴만큼 큰 곳이다.

일본 야조회는 이곳에 부장급인 하나이신이찌 씨 등을 상주시키고 정부당국에서 위임받은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



야조회는 전문분야만을 담당하고, 공원안내나 관리는 도쿄항만부두공사 공원내 관리사무소가 맡고 있다.

수년전 필자는 대만대학의 교수진들과 함께 공사진척작업을 시찰한바 있었고 광대한 설계내용을 얻어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종도나 인천근처에 쓰레기 매립장소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다. 이제 우리도 도쿄부두에 건설한 인공 쓰레기섬 야조공원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드는 것과 같은 구상이 필요한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나마 한번 권하고 싶다.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도 만들고, 새들도 불러들여서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방안, 즉 일석이조 정책 입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